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김석주

분노증후군 '화병(火病)' 다스리기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는 국경은 없고, 경쟁의 상대는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력은 협력의 창조물이 되어야지 너와 내가 죽기 살기로 다투어서 만들어낸 비밀무기 같은 상대적 경쟁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살면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 경쟁에서 그 진가는 발휘될 수 있다.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의 이미지는 허투루 쉰 쇠신해야만 한다.

화병이란 신체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제대로 풀리지 못하여 가슴 속 응어리가 '한(恨)'으로 남아 불만, 불신, 불안과 같은 마음속의 불이 우울 등의 증상과 함께 통증이 오고 숨이 막히며 위장병과 같이 정신적,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불만과 욕심, 불신과 근심, 불안과 의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

이다.

한방에서는 이 병을 몸의 화(火)를 제대로 풀지 못하여 뭉쳐진 울화병이라 설명하고 있다.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도 이것은 특히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특이한 분노증후군으로 화(火)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한(恨)'과 관련이 있으니 우리 문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증후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꼭 한국인의 병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발병 초기의 분노, 억울, 화 등의 호소가 점차 불안, 초조, 허망, 우울, 의욕 상실 같은 증상으로 변하여 우울증과 겹치고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에 어느 누구든지 조심해야만 한다.

경쟁사회의 대표적 그늘로 지적되고 있는 이 질병은 정신장애와 겹쳐있다. 40~60%가 우울증, 20%는 불안증이 동반되어 분노의 감정, 마음 속 갈등, 갖가지 신

체적 증상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바로 화를 낸다면 또 다른 화가 뒤따를 것이다. 불처럼 일어났다가 꺼져가는 분노의 속성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참고 또 참으면서 인고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하자.

분노의 화는 차치하면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실패와 좌절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크게 생각하여 자신의 화와 울분을 상대방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어른들이 두고 쓰는 '냉수 먹고 속 차라라.'라는 우리 속담의 뜻을 분석해보자. 물은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식품이라 생각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한다. 물은 화로 인해 생성된 물질을 체외로 배설시키고, 75%가 물로 되어있는 뇌신경을 진정시킨다. 92%가 물인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기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는데, 감증은 우리 몸의 물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확한 신호가 아니다. 우리 몸 안에서 요구되는 수분의 절대량보다 부족한 상태에서조차 전혀 감증을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감증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물마시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분노로 인하여 산성화된 체액을 알칼리로 변화시키는 칼슘을 챙겨서, 무청(시래깃국), 고구마줄기, 깻잎 등을 많이 먹고, 굴과 된장국도 빼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생관의 개선이고 마음가짐의 자세이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분노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안분지족(安分知足 : 편안 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자.)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귀머거리 남편과 병어리 아내로 서 할박웃음 동무하여 살아간다면 행복의 미소가 울분과 화를 쫓아줄 것이다.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황원당)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부러진 화살=부러진 권위



윤빈호

권위(權威)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다. 그러나 '힘'이라는 단어 때문에 권위의 사전적 의미가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힘 즉 파워를 돈, 명예, 지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력지상주의에 빠져 있는가보다. 사람들은 권력(勳力)을 가지면 권위가 생긴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권위에 도전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제압당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권위는 참된 권위라 볼 수 없다.

과거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권력=권위'라는 잘못된 도식에 늘려 있다. 가정에선 가

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다.

교육의 현장에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의 발로가 선생은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을 마음대로 체벌해도 된다는 잘못된 권위가 있다.

군대에선 "북한 괴뢰집단을 무찌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軍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

종교 안에서도 신적인 영역을 독점하는 성직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이 있었다.

법 집행의 현장에선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를 왜곡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국가의 수반이요 3권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독하면 국가의 권위를 전복하는 불순세력으로 간주하고 권력을 휘둘러 제압하

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영화는 2007년 벌어진 판사 석공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개봉 2주 만에 200만 명이 보았다고 한다.

무엇이 이토록 이 영화를 보도록 만드는 것일까? 심지어는 이 영화에 대한 토론 댓글에서는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은 이 영화를 또 볼 것이라 답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반감은 아닐까?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 깊게 뿌리내린 '권력=권위'라는 잘못된 권위에 반항하는 것을 보고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참 권위란 무엇인가? 아니 '권력+권위'라는 도식이 성립하지 않는 권위는 무엇인가? 2000년 전 예수님은 참 권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당시 잘못된 권위의 상징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이를 겨냥하

서며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지 마라. 잔치집에서는 뒷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 불리길 좋아한다."라고 일침을 놓으셨다.

'사랑=권위' 혹은 '자기 비움=권위'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이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권위'는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과도기는 충분히 필요한 조건이다. 흑흑의 해를 맞아 올 한해 있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단연 '권력=권위'라는 잘못된 권위가 사라졌다는 빅 뉴스를 고대하며 우리 모두 참된 권위를 위해 자신의 직책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부러진 화살=부러진 권위'가 지금은 아픔으로 다가와도 내일은 '사랑=권위' 혹은 '자기비움=권위'라는 새로운 권위를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영암심호성당 주임 신부)

기고

서민철도 폐지 우려되는 KTX 민간 개방



김윤아

우리 지역인 전라선의 KTX 열차 여수 엑스포행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고 지난해 10월 설레는 마음으로 개통식에 참여해 기쁨을 함께했었다. 서울에 주요 일장들을 어려움 없이 하루에 다 보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비 부분에서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이런 이익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료가 저렴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횡수가 감소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새로운 걱정으로 서민들이 불편하게

되었지 않나 하는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요즘 언론매체와 인터넷에서는 KTX 민간개방이라는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평소 출장이나 장거리 가족여행에 열차를 자주 이용하던 터라 KTX 민간운영 추진이라는 이슈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신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2015년 초에 예정된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이 구간을 이용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운영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발간되어 되었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들까지도 찬반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이유는 현재 코레일에서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KTX 이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코레일에서는 중부투자자인 비효율성과 운임인하 및 서비스 향상 전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철도 산업 특성상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KTX 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코레일의 자료처럼 현재 고속철도 운영이익으로 지방철도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면, 수익이 예상되는 KTX 노선의 민간운영은 철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지방철도 운행 축소와 적자선 폐지 및 국민 부담증가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민간 개방 반대 측의 우려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전라선 및 경전선 등 모든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KTX 민간개방이 된다면 코레일의 적자 악화로 인하여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운행 폐지 사태 등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매우 걱정된다.

철도는 국민편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산업이다. 전기, 가스 등 같이 모든 국민들이 대규모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운영에 따른 장점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철도만의 특수성과 공익성, 지방철도 축소 가능성 등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KTX 민간개방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외국인유학생 대상 졸업장 장사하는 대학 걸러내자

작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9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확실시된다고 하니 우리 대학이 국제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양성하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국내 저급 지방대학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참고로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1983년도에는 전국에 4년제 대학만 100여개 정도였다. 그러나 지

금은 그 숫자가 무려 200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대학이 정말 필요하다면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 반면에 대학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대학들이 대학 운영비를 벌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 한가지 방법

이 바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동남아 대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동남아 대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국내 대학에 들어와 취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학생 머릿수 채우기 급급한 저급 지방대학들은 이들이 와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 대학이 부실 운영되다 보니 대학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은 형편없어진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방대학들이 미달된 정

원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한 뒤 관리를 소홀히 것도 문제다.

유학생이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불법 취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경영 부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장 장사'를 해 연명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이는 국내 대학의 이미지 추락을 부르는 행위이다.

앞으로 장사식으로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타리 대학은 걸러내야 마땅하다.

▲김선강·광주시 북구 봉동동

시설

무안기업도시 좌초 위기 대책은 없는가

무안기업도시의 사업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됐다. 하지만, 핵심 주체인 중국 투자자가 사업에서 철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결정을 내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개발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사업 면적을 당초 17.7km²에서 28% 수준인 5.02km²로 축소했다. 지구지정 면적이 너무 넓어 현재 경제여건에 맞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은 1일 주주총회를 열고 SPC 해산과 청산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국내기업 가운데 대해 투자자를 물색, 다음달 말까지 지분정리를 새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안인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5년이다. 지역민들은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 한계로, 국

내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 중국자본 유체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기업도시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무안군이 한·중중단사업을 놓여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으로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도 한·중경제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무부도 묵살했다. 중국측이 철수의 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한 것은 이미 반증된 셈이다.

무안기업도시의 성공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무안군은 중국측의 철수 배경을 철저히 파악,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 알'로만 치부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범지역 선정 당시의 취지를 살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장애인시설 인권 사각지대 당국은 뭘 하나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광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10대 소녀를 8년간 철창에 감금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광주시 서구 장애인시설인 현비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지적 뇌병변장애 1급인 A(17)양이 지난 2004년부터 8년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의 철창에서 감금된 채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이 철창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불과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갇혀 사는 교도소의 독방이 무색할 정도다. 마치 중범죄자나 짐승 취급을 한 것이다.

또 이 시설 직원들은 빗자루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했고, 장애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다. 직원들에 의한 원생들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시설 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니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 시설이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한 데는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서구청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다. 그동안 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 시설에 있는 원생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몰려도 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강운대 시장이 현비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쇄조치를 지시했음에도 주무부서인 복지건강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가장 해이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렇고도 광주를 민주·인권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감독기관은 인권위가 권고한 현비동산을 조속히 폐쇄해야 하고,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이같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큰 만큼 제도적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시설 대표는 물론 학대를 가한 직원들에 대해 중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학생이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가까머리였다. '바리깡'이라는 이발기기로 머리카락을 뽀뽀 밀고난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만지면 따가울 정도였다. 가까머리에 모자를 쓰고 목에 후크가 달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외견상으로는 개성이 없는 존재였다.

사복 1세대로 고교에 진학한 후로 복장은 규제에서 풀렸지만 헤어스타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남녀공학이란 점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자유분방한 편이었지만 머리카락이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헤어스타일로 개성을 표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교련선생님의 두발검사는 율례 행사였고,

는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포함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휴대전화 허용 등 학생들이 누릴 다양한 권리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반기지만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많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보니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인권조례'가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

인권조례



사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한 점도 광주시, 경기도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요인이다.

광주에서는 당장 개학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다. 그만큼 논란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가 되니 퍼머머리에 교복을 고쳐 입고 다니는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게 기라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장필수 사회부처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